

《靈樞·陰陽二十五人》의 體質論 研究

제 1장. 緒論	136
제 2장. 本論	136
제 1절. 《內經》의 體質論 개괄	136
1. 《內經》의 體質論	136
가. 體質 形成	137
나. 體質 分類	137
다. 體質과 發病 關係	137
라. 體質과 病理變化 關係	137
2. 〈陰陽二十五人〉과 〈通天〉에 제시한 體質論 비교 ...	137
제 2절. 25人 體質分類 目的	138
제 3절. 25人 體質分類 根據	138
1. 5形人 分類	138
가. 發達한 五臟의 經絡을 根據	138
나. 皮膚色, 體形, 稟性, 時令 適應의 差異	139
2. 25形人 分類	139
가. 六腑 經絡의 發達 部位	139
나. 體毛, 皮膚, 肌肉 상태, 動作, 病理 變化	139
제 4절. 〈陰陽二十五人〉에 나타난 特徵	140
1. 陰陽五行論 遵守	140
2. 經絡 體系를 活用	140
3. 外形 差異는 體內 氣血의 狀態를 反影	140
4. 體質에 따른 季節的 適應力 차이	140
5. 經絡에서 上部는 頭部, 下部는 四肢와 體幹을 指稱	140
제 5절. 25形人 活用價値	141
1. 診斷的 價値	141
가. 診斷에 體質的인 特徵을 중시	141
나. 氣血 狀態를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	141
다. 望診을 위주로 切診을 並用	141
2. 治療的 價値	141
가. 鍼을 주된 方法으로 治法 提示	141
나. 體質에 적합한 治療 部位를 선택하는 단서를 제시	141
제 6절. 後代 醫學에 對한 影響과 意義	142
제 3장. 結論	143
參考文獻	144

碩士學位論文

《靈樞·陰陽二十五人》의 體質論 研究

暎園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張信明·林鎮錫

제 1장. 緒 論

현재 東武 李濟馬 先生이 創案한 四象醫學이 臨床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關心이 높다. 醫學 理論을 臨床에 더 正確하게 適用하기 위해서는 그 理論의 根據나 基本原理에 대한 理解를 先行해야 한다.

著者は 東洋醫學의 宗主人 《黃帝內經》¹⁾의 內容을 통하여 體質醫學의 起源을 찾고 內容을 분석하여, 現代 體質醫學을 이해하는 올바른 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本 研究를 시작하였다.

體質에 대한 定義나 分類法은 동서양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주장하였다. '體質이란 形體에 機能을 결부한 것으로 遺傳的 體質의 形成要素와 生活環境의 影響이 합하여 形成되는 것이나, 類型體質은 生活環境의 면을 제외한 遺傳的인 體形, 機能, 感情을 總和한 身體精神的인 形質의 합쳐짐에 따라 分類된 것'²⁾으로 볼 수 있다.

《內經》에는 類型體質論 뿐 아니라 일반적인 體質論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먼저 《內經》에 기재된 일반적인 體質論을 살펴 보고, 그 중에서 《內經》의 類型體質論으로서 현대 四象醫學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通天》과 《陰陽二十五人》의 體質論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陰陽二十五人》이 《內經》의 體質論에서 차지하는 位置와 그 意義를 살펴보았으며, 《陰陽二十五人》의 구체적인 內容을 통하여 體質分類의 目的과 分類基準, 臨床의 活用 價値와 後代 醫學에 미친 影響 등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제 2장. 本 論

제 1절. 《內經》의 體質論 개괄

1. 《內經》의 體質論

《內經》에서 언급된 體質論들을 종합하여 보면 體質을 正氣 즉, 邪氣에 對抗하는 抵抗力의 強弱이나 體格 大小, 優劣로 보는 觀點과, 體質이 人體 內部的 五臟, 六腑, 經絡, 氣血 상태가 균형 잡히지 않은 즉, 偏僻된 差異로 보는 觀點으로 大別할 수 있다. 前者의 體質論에서는 體質이 後天的인 攝生, 環境 등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變

1) 이하 《內經》으로 간칭한다.

2) 四象醫學, p. 250

化할 수 있으나, 後者의 體質論에서는 體質을 先天的으로 決定되는 것으로 後天的인 條件에 상관 없이 일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靈樞·逆順肥瘦》, 《靈樞·衛氣失常》, 《靈樞·論勇》의 體質論이 前者에 해당하고, 《靈樞·通天》과 《靈樞·陰陽二十五人》의 體質論은 後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體質 形成

體質은 先天的으로 決定되지만 身體는 營養을 받아야 자라므로 飲食物은 人體가 成長하는 基礎物質이다.

體質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 要素는 크게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으로 나눈다.³⁾

이와 같이 體質은 先天的인 強弱, 飲食, 自然環境, 貧富와 貴賤 그리고 生活 差異에 따라 差異가 發生한다.

나. 體質 分類

《內經》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體質을 몇 가지 基準에 따라 分類하였다.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體形, 稟性을 五行 特性을 根據로 人體를 5種으로 나누고 다시 5種으로 細分하여 25種 體質로 나누었다.

《靈樞·通天》에서는 人體의 陰陽多少와 態度, 性格의 特徵을 결합하여 分類하였다. 人體를 陰이 偏盛한 體質, 陰이 많고 陽氣가 적은 體質, 陽氣는 많고 陰氣가 적은 體質, 陽氣가 偏盛한 體質, 陰과 陽이 和平한 體質로 구분하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 陰陽和平人으로 나누었다.

體形 特徵을 위주로 氣血 狀態를 結合하여 分類한 것도 있다.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肥人,

瘦人, 肥瘦가 適當한 사람으로 구분하였으며, 《靈樞·衛氣失常》에서는 肥胖人을 다시 膏形, 脂形, 肉形으로 나누었다.

《靈樞·論勇》에서는 다른 稟性에 근거하고 身體와 生理 特徵을 結合하여, 心肝膽이 旺盛하고 形體가 健康하여 勇敢하고, 心肝膽이 衰退하고 體質이 弱하여 怯이 많고 弱한 두 가지 體質로 分類하였다.

이와 같이 《內經》에는 體質에 관한 언급이 다양하게 있으나, 그 중에서 內容이 比較的 具體的이고 本格的으로 體質을 다룬 것은 《靈樞·陰陽二十五人》과 《靈樞·通天》 두 篇으로 볼 수 있다.

다. 體質과 發病 관계

內經에서는 疾病이 發生하고 變하는 것이 體質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體質은 病因을 찾고 病理를 分析하며 豫後를 判斷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疾病은 본래 病因에 관계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體質 強弱과 抵抗力에 달려있다. 이렇게 內經에서는 發病에 있어서 體質의 差異를 일차적인 內部 原因으로 強調하였지만 外因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라. 體質과 病理變化 관계

體質은 陰陽의 偏僻性을 포함한다. 이러한 特徵은 人體가 發病하면 病理 變化와 結合하여 현저하게 드러난다. 人體에 침입한 六氣는 人體 陰陽 強弱 變化를 따라서 疾病이 된다. 體質이 다르면 發病하는 特徵이 다르고 體內 疾病은 반드시 形態의 變化를 유발한다.

2.《陰陽二十五人》과 《通天》에 제시한 體質論 比較

3) 精校黃帝內經素問, p.97 《素問·保命全形論》 “人以天地之氣生.”

〈陰陽二十五人〉과 〈通天〉의 體質論을 比較하여 보면 〈陰陽二十五人〉과 〈通天〉 모두 分類의 形式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陰陽五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體質을 判別하는 方法에 있어서 25形人은 形을 爲主로, 五態人은 態를 爲主로 觀察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體質이 나뉘어지는 原因을 〈陰陽二十五人〉에서는 經絡 氣血의 多少로, 〈通天〉에서는 陰陽의 多少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疾病의 治療에 있어서도 前者에서는 偏向된 經絡의 氣血을 調節하여 주는 것을 目標로 하였고, 後者에 있어서는 陰陽이 偏盛偏衰한 狀況에 따라 各 體質別로 治療 原則을 달리하고 있다. 즉, 體質의 偏僻性을 疾病의 原因으로 보고 이를 解消하는 것이 治療의 方向인 것은 같으나, 調節하여야 할 目標가 氣血과 陰陽으로 區別되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제 2절. 25人 體質分類 目的

本文에서 “願聞二十五人之形, 血氣之所生, 別而以候, 從外知內何如?”⁴⁾, “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 可以知逆順矣.”⁵⁾, “必先明知二十五人, 則血氣之所在, 左右上下, 刺約畢也”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外部에 나타난 形을 觀察함으로써 內部 經絡의 氣血多少를 파악하고 이를 通하여 疾病의 診斷과 治療에 있어서 端緒를 마련하고자 하여 25種의 體質을 區分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제 3절. 25人 體質分類 根據

4) 精校黃帝內經靈樞, p. 274

5) 上揭書 p. 276

6) 上揭書 p. 276

本篇에서 “先立五行金木水火土, 別其五色, 異其五形之人, 而二十五人具矣.”라고 하였다. 이는 먼저 金木水火土의 다섯 類型을 確立하고 五色을 區別하고 이들 五形人을 五音에 比較하여 各各을 다시 다섯 類型으로 分類하여 25形人으로 나누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陰陽二十五人〉의 저자가 五音을 比類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體質의 복잡한 정도와 音調變化의 유사성을 나타낸 것이다.

1. 5形人 分類

가. 發達한 五臟의 經絡을 根據

먼저 人體에서 五行을 대표하는 부위인 五臟 즉, 肝, 心, 脾, 肺, 腎의 기운이 나타나는 足厥陰經, 手少陰經, 足太陰經, 手太陰經, 足少陰經이 특징적으로 발달된 사람을 各各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의 다섯 가지 類型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各各의 발달된 經絡의 특징을 ‘佗佗然’ 등의 形容詞로 표현하고, 五音에 비교하여 上角, 上徵, 上宮, 上商, 上羽로 표시하였다.

“其態又不合于衆子五, 余已知之矣.”⁷⁾라고 하여 《靈樞·通天篇》에 나타난 五態人과는 다른 觀點인 體形의 特徵을 分別하여 體質을 구분하였음을 밝혔다.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나타난 “佗佗然”과 같은 형식의 중복된 형용사구는 총 25종류로 26구가 있다. 그 종류는 佗佗然, 遺遺然, 隨隨然, 推推然, 括括然, 核核然, 肌肌然, 惛惛然, 皎皎然, 支支頤頤然, 敦敦然, 婉婉然, 坎坎然, 樞樞然, 兀兀然, 廉廉然, 脫脫然, 監監然, 嚴嚴然, 延延然, 汗汗然, 頰頰然, 紆紆然, 潔潔然, 安安然의 25종이

7) 上揭書 p. 274

며, 敦敦然이 2회 나타나서 총 26구가 된다.

이러한 형용사구들의 의미에 대하여는 역대 注家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각각의 해석들을 비교하여 보면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각 形人들의 전체적인 品性이나 特性으로 해석하는 것과 각 形人에 발달된 經絡 部位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足厥陰佗佗然’에서 대부분의 板本에서 구두점 없이 연결되어 있고, 내용상 주어 술어의 구조로 볼 때, 문맥상으로 佗佗然은 足厥陰經 자체의 형태나 상황을 직접 묘사한 것으로 본 馬蒔와 張介賓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形容詞句들이 지칭하는 것이 각 經絡 循行部位의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지는 더 연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나. 皮膚色, 體形, 稟性, 時令 適應의 差異

五形人의 特徵은 바로 五形人을 區分하는 判斷의 기준이 된다. 五形人 分類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皮膚色, 體形, 稟性, 時令 適應의 差異를 들었다.

즉, 五形人의 특징 중에서 具體的인 體形은 각 形人의 五行屬性인 木火土金水(或은 나무, 불, 흙, 쇠, 물)의 本體로 말하였고, 稟性의 差異와 時令 適應의 差異는 本性으로 描寫하였다.⁸⁾

2. 25形人 分類

가. 六腑 經絡의 發達 部位

五形人에 배속된 五臟 각각에 相應하는 腑인 膽, 小腸, 胃, 大腸, 膀胱의 經絡이면서 五臟 經絡과 表裏가 되는 經絡인 足少陽經, 手太陽經, 足陽明經, 手陽明經, 足太陽經의 분포 부위인 上下, 左

右의 4부분 중에서 특징적으로 발달된 부위를 五音의 細部的 分類⁹⁾에 비교하여 各各 4形人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분류된 20가지 形人에 五形人을 합하여 총 25形人으로 분류하였다.

(표 1) 25형인 분류

全 形	偏 形			
	左 上	左 下	右 上	右 下
上 角 木形之人 肝足厥陰	大 角 膽	判 角 膽	鈇 角 膽	少 角 膽
上 徵 火形之人 心手少陰	質 徵 小腸	質 判 小腸	右 徵 小腸	少 徵 小腸
上 宮 土形之人 脾足太陰	大 宮 胃	加 宮 胃	少 宮 胃	右 宮 胃
上 商 金形之人 肺手太陰	鈇 商 大腸	左 商 大腸	右 商 大腸	小 商 大腸
上 羽 水形之人 腎足少陰	桎 膀胱	小 羽 膀胱	大 羽 膀胱	衆 膀胱
	足太陽	足太陽	足太陽	足太陽

나. 體毛, 皮膚, 肌肉 상태, 動作, 病理 變化

25形人의 판단 기준으로는 體毛의 有無 및 分布 範圍, 길이와 潤澤한 定度, 毫毛¹⁰⁾의 有無, 肌肉의 肥瘦와 堅脆, 皮膚의 厚薄, 平常時의 動作 및 發病時의 病理 變化 등을 들고 있다. 이들 中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部位가 어느 經絡의 循行 部位이며, 全身의 經絡分布 중 左上, 左下, 右上, 右下의 어디에 該當하는 지를 살펴서 25形人 중의

9) 木形之人 - 上角, 大角, 鈇角, 左角, 判角. 火形之人 - 上徵, 質徵, 右徵, 少徵, 質判.

土形之人 - 上宮, 大宮, 少宮, 左宮, 加宮. 金形之人 - 上商, 鈇商, 左商, 少商, 右商.

水形之人 - 上羽, 桎羽, 大羽, 衆羽, 少羽.

10) 黃帝內經古注選集, p 550 “張志聰曰, 毫毛者, 眉中之長毛. 因血氣盛而生長. 眉惡者, 無華彩而枯瘁也.”

8) 靈樞經校釋, p. 1272

한가지로 配屬하였다.

5形人을 土에 配屬하고 여기에 木火金水의 四象을 합한 것으로 본다면, 25形人은 五行의 바탕에 다시 上下, 左右 各各의 陰陽 概念을 조합한 4象의 概念까지 適用시킨 分類로 볼 수 있다.¹¹⁾

제 4절. <陰陽二十五人>에 나타난 特徵

1. 陰陽五行論 遵守

本篇에 나타나는 氣와 血, 陽經과 陰經, 經絡의 上下 및 左右에 따른 體質의 區分 등에서 나타나는 氣血, 上下, 左右 等의 용어들은 모두 陰陽理論에 근거한 分類法에서 나온 것이다. 즉, 사람의 선천적인 稟賦가 다른 것을 근거로 陰陽五行學說의 이론을 운용하고 五音과 五色을 결합하여 二十五種人의 서로 다른 특성을 귀납적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¹²⁾

2. 經絡 體系를 活用

本篇에서는 各 經絡의 流走 部位, 五行 配屬은 물론 陰經과 陽經의 表裏關係 등을 이용하여 各 體質에서 발달한 經絡 및 그 상태를 연관지었는데, 이는 <內經>의 經絡學說을 體質에까지 구체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일반적인 經絡의 氣血多少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經絡의 氣血多少의 概念 아래, 당시의 疾病의 狀態, 더 나아가서는 개인별로 發達한 經絡 및 氣血多少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여,

11) 靈樞經校釋, p. 1272 “... 下言太角少角欽角判角, 乃陰陽之生爲太少四象也.”

12) 靈樞經, p. 225

실제 臨床에서 體質의 差異라는 또 다른 觀點을 提示하였다.

3. 外形 差異는 體內 氣血의 狀態를 反映

本篇에서는 氣血이 모두 盛하면 體毛가 潤澤하고 길며 肌肉이 따듯하며 살지고, 氣와 血이 모두 적으면 體毛가 없거나 있어도 마르고 윤기가 없으며 轉筋이나 痛症 寒症 등의 病理 狀態가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氣가 많고 血이 적으면 體毛의 수가 적고 皮膚는 얇고 연하며,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면 體毛가 짧고 皮膚가 단단하면서 두텁게 된다고 하였다.

4. 體質에 따른 季節的 適應力 차이

體質의 差異가 四時의 氣候變化에 따라 健康 狀態와 疾病의 發生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였는데 이는 各 體質의 特性은 木火土金水 5氣를 基準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당연히 五行의 氣運을 가장 잘 드러내는 四時의 變化에 따라 人體가 反應한다는 <內經>의 天人相應思想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經絡에서 上部는 頭部, 下部는 四肢와 體幹을 指稱

足陽明經의 上部에서는 髻과 吻, 下部에서는 下毛(胸, 臍), 足, 足趾에 特徵이 나타난다. 足少陽經의 上部에서는 髻, 下部에서는 脛毛, 外踝, 肘에서 特徵이 나타나며, 足太陽經의 上部에서는 眉, 面에서, 下部에서는 跟肉, 踵에서 特徵을 볼 수 있다. 手陽明經의 上部에서는 鬚에서, 下部에서는 腋下毛, 手魚肉, 手에서 特徵을 觀察하고, 手少陽經의 上部에서는 眉, 耳에서, 下部에서는 手에서 관찰하며, 手太陽經의 上部에서는 鬚, 面肉에서, 下部에서는 掌肉에서 觀察한다.

以上으로 볼 때 各 經絡의 上部의 特徵은 頭部에서, 下部의 特徵은 體部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天圓地方¹³⁾의 概念이 人體에 相應하여 頭部를 上으로 보고 體部를 下로 파악하는 《內經》의 陰陽概念에 합치하는 것이다.

제 5절. 25形人 活用價值

1. 診斷的 價值

가. 診斷에 體質的인 특징을 중시

본 편에서는 二十五人의 態度가 다르고 그 筋骨氣血이 차이가 남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입장에서 辨證할 때 환자의 서로 다른 體質的인 表現을 관찰해야 內在한 臟腑와 氣血의 기능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질병의 일반적인 情況을 파악하는 이외에 體質的인 特徵에 주의해야 함을 말하였다.¹⁴⁾

나. 氣血 狀態를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

各 經絡이 循行하는 部位의 上部와 下部에서 氣와 血이 같이 盛한 경우, 血은 적고 氣가 많은 경우, 氣가 적고 血이 많은 경우, 氣와 血이 함께 적은 경우에 體毛의 分布 範圍, 長短, 多少와 潤澤한 定度, 毫毛의 有無를 區分하고, 肉의 肥瘦, 皮의 厚薄과 軟堅, 잘 나타나는 病變에 이르기까지를 分別하여 25形人 中 어떤 體質에 屬하는 지를 判定하여야 함을 밝혔다.

다. 望診을 위주로 切診을 竝用

外形을 관찰하여 氣血의 盛衰를 判別하는 방법

13) 精校黃帝內經靈樞, p. 298 《靈樞·邪客》 “天圓地方, 人頭圓足方以應之.”

14) 黃帝內經靈樞校註語譯, p. 417

외에 切診의 方法도 함께 제시하였다. 즉, “寸口脈과 人迎脈을 눌러서 陰陽의 盛衰를 살피고, 經絡의 循行 部位를 눌러서 氣血이 막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¹⁵⁾고 하였다.

2. 治療的 價值

가. 鍼을 주된 方法으로 治法 提示

鍼法의 原則에 대하여는 外部 형태상의 特徵을 통하여 해당되는 經絡의 氣血多少를 파악하여 形氣의 有餘不足을 잘 살펴서 調理하면 疾病의 치료에 있어서 補할 것인지 瀉할 것인지¹⁶⁾를 알 수 있다(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 可以知逆順矣.)¹⁷⁾고 하였다.

구체적인 治法으로는, 經脈의 순행 경로에 따라 氣血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經絡 中心의 鍼治療法을 제시하였다.

나. 體質에 적합한 治療 部位를 선택하는 단서를 제시

구체적인 治療의 部位는 《靈樞·五音五味》에 나타난다.

右徵與少徵, 調右手太陽上. 左商與左徵, 調左手陽明上. 少徵與大宮, 調左手陽明上. 右角與大角, 調右足少陽下. 大徵與少徵, 調左手太陽上. 衆羽與少羽, 調右足太陽下. 少商與右商, 調右手太陽下. 桎羽與衆羽, 調右足太陽下. 少宮與大宮, 調右足陽明下. 判角與少角,

15) 精校黃帝內經靈樞, p. 276 “按其寸口人迎, 以調陰陽, 切循其經絡之凝滯.”

16) 黃帝內經古注選集, p. 554 “馬氏曰, 審察其形氣之有餘不足, 而盛則瀉之, 虛則補之, 可而知當補而補, 當瀉而瀉之爲順, 而反此則爲逆矣.”

17) 精校黃帝內經靈樞, p. 276

調右足少陽下。欽商與上商，調右足陽

明下。欽商與上角，調左足太陽下。

이를 보면 25形人的 各體質에 따라 調節해야 하는 經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鍼으로 다스릴 經絡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治療穴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內經의 鍼法인 四時刺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季節에 맞게 五俞穴에 刺鍼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五音五味)에서 제시한 治療 經絡을 종합해 보면, 治療 經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規則性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張志聰은 注에서 “陰經과 陽經의 血氣는 각각 분포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지만 調節하여 다스려야 하는 經絡이 혼동되었거나, 經氣가 서로 通하거나, 아니면 글자들이 서로 비슷해서 잘못 안 것이므로, 後世에 현명한 사람이 나와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¹⁸⁾

제 6절. 後代 醫學에 對한 影響과 意義

(陰陽二十五人)의 體質論이 後代에 具體적으로 研究되거나, 鍼治療나 기타 治療에 있어서 診斷法과 治法으로 직접 活用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內經時代에 이미 人體 生理, 病理적인 偏僻性을 나타내는 體質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具體적인 分類와 區別의 원칙, 治療法까지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¹⁹⁾ 또한 《太少陰陽人の 形氣論的 研究》에서 밝힌 바 “東武의 四象論이라고 하는 것은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二十五形

人으로 細分하여 論한 것을 簡素化시킨 것²⁰⁾으로, 《靈樞·通天》과 함께 四象醫學의 體質論이 成立되는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分類한 形式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內容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본다면 기본적인 줄기가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黃帝內經古注選集, p. 565

19) 靈樞經, p. 225

20) 宇宙變化의 原理, p. 228

제 3장. 結 論

1. 外部에 나타난 形을 觀察함으로써 內部 經絡의 氣血多少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疾病의 診斷과 治療에 있어서 端緒를 마련하기 위하여 25種 體質을 구분하였다. 즉, 人體에서 五臟의 經絡이 특징적으로 발달된 사람을 다섯 가지 類型으로 나누고, 五臟 經絡과 表裏가 되는 六腑經絡의 分布 部位인 上下, 左右 4부분 중에서 특징적으로 발달된 부위에 따라 각각 4形人으로 나누었다.

2. 經絡 循行部位 중 上下左右, 體毛의 有無 및 分布 範圍, 길이와 潤澤한 定度, 毫毛의 有無, 肌肉의 肥瘦와 堅脆, 皮膚의 厚薄, 정상시의 動作 및 發病時的 病理 變化 등을 25形人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判斷基準으로 삼았다.

3. 診斷에 있어서 外形을 관찰하여 氣血의 盛衰를 판별하는 방법 외에 切診의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4. 25形人 각각 해당 經絡과 氣血의 상태를 파악하여 조절하는 것을 治療의 원칙으로 삼았으며, 각 體質에 적합한 治療 經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端緒를 제공하였다.

5. 〈陰陽二十五人〉과 〈通天〉에서는 人體의 生理 病理的인 偏癖性을 體質의 概念으로 把握하였으므로 《內經》에서 이미 現代의 四象醫學과 같은 類型體質論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陰陽二十五人〉과 〈通天〉의 體質論은 둘 다 《內經》의 基本 理論인 陰陽五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陰陽二十五人〉에서는 外部로 나타난 形을 위주로 관찰하여 五行의 原理로 體質을 연구하였으며, 〈通天〉에서는 態를 위주로 관찰하여 四象의 原理에 의하여 體質을 연구하였다.

7. 25形人의 특징을 설명하는 佗佗然 등 形容詞句의 정확한 의미와 〈五音五味〉에 나타난 25形人의 治療經絡의 規則性은 앞으로 더 연구하여야 할 부분이다.

〈參考文獻〉

1. 郭靄春編著, 黃帝內經靈樞校註語譯, 一中社.
2. 權健赫, 太少陰陽人에 對한 形氣論의 研究, 1997.
3. 金基郁, 運氣體質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10, 1996.
4. 金元中 編著, 虛辭辭典, 玄巖社, 1993.
5.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6. 劉渡舟主編, 白話中醫四部經典, 天津科技翻譯出版公司, 1994.
7. 馬元臺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利大出版社, 中華民國74年.
8. 朴贊國主篇, 懸吐黃帝內經講義,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9. 朴贊國編譯, 臟象學, 成輔社, 1992.
10.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1995.
11. 사상의학회, 사상의학회지 Vol. 4, 1992.
12. 小曾戶洋 條原孝市, 黃帝內經古注選集, オリエント出版社, 1988.
13. 楊維傑 編, 黃帝內經素問靈樞譯解, 成輔社, 1980.
14. 王洪圖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出版社.
15. 尹吉榮, 四象體質醫學論, 明寶出版社, 서울, 1896
16. 張介賓, 類經, 大成文化社, 1982.
1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18. 宗全和篇, 靈樞經, 中外文化出版公司 春秋出版社, 1988.
19.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一中社.
20.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杏林出版社, 1966.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5.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5.